

■ 주요 뉴스: 오미크론 사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충격 불가피할 전망

- 미국 대통령,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연준과 논의
-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테이퍼링 가속화 및 내년 1~2회의 금리인상을 지지
- ECB 부총재 및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를 표명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오미크론 출현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강화

주가 하락[-2.2%], 달러화 상승[+0.1%], 금리 하락[-7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오미크론에 대한 경계감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여행 및 레저 관련주 약세 등으로 4.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경기회복 차질 우려 등으로 주 후반 상승세 둔화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
독일은 ECB의 조기 금리인상 전망 악화 등으로 주말 앞두고 상승폭 반납

※ 원/달러 환율(주간) 0.7% 상승, 한국 CDS 상승

		11/26일	11/19일	전주말대비			11/26일	11/19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594.6	4,698.0	-2.20%	국채 금리 10y	미국	1.47%	1.55%	-7bp
	유럽	464.05	486.08	-4.53%		독일	-0.34%	-0.34%	0bp
	중국	3,564.1	3,560.4	0.10%	CDS 5y	한국	20bp	19bp	1bp
	일본	28,752	29,746	-3.34%		중국	54bp	49bp	5bp
	한국	2,936.4	2,971.0	-1.16%	위험 지표	EMBI+	415	380	35bp
환율	달러지수	96.09	96.03	0.06%		VIX	28.62	17.91	59.80%
	유로화	1.1317	1.1290	0.24%		WTI유	68.15	76.10	-10.45%
	엔화	113.38	113.99	0.54%	원자재	구리	428.4	440.8	-2.81%
	위안화	6.3933	6.3871	-0.10%		금	1,802.6	1,845.7	-2.34%
	원화	1,193.3	1,185.3	-0.6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오미크론 사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

- 오미크론의 감염력이 이전 변이들보다 월등하게 강하다는 소식으로 미국 등 주요국들은 처음 감염이 확인된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여행제재를 단행. 이스라엘은 2주간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 12개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을 확인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코로나 19 자문역 Barry Schoub 박사는 감염자들의 증상이 가볍다고 평가.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이와 관련된 공식 정보는 없다고 지적. 이번 사태의 전망에서 관건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 화이자사는 오미크론 조사에 착수했으며, 2주 이내에 기존 백신의 조정 필요 여부를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 모더나도 오미크론에 대한 전략 수립을 진행 중
- 오미크론과 관련된 정보가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향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 다만, 이에 따른 불안이 지속된다면 금년 연말에 소비 둔화, 여행객 수 감소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일부에서는 경기둔화 가능성이 고조된다면 연준, 영란은행 등과 같이 그동안 통화정책 정상화 및 긴축을 추진하고 있던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전환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
- 금융시장에서는 단기적 측면에서 변동성 증가와 주가 하락 등의 위험자산 회피가 불가피할 전망. 반면 장기적으로 정상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 전망은 유지. 투자자들은 오미크론 관련하여 보다 많은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시장 참여에 소극적일 가능성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대통령,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연준과 논의

-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공식 중인 연준의 이사직에 대한 인사 결정에서도 해당 사안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언급. 자신이 임명하고 있는 연준의 새로운 인사들이 향후 정책 결정에서 이러한 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최근 오미크론 우려로 미국 주가가 큰 폭 하락했지만, 이를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발언. 아울러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에 따른 주가하락은 항상 있는 일이라고 부연

■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테이퍼링 가속화 및 내년 1~2회의 금리인상을 지지

- 보스틱 총재는 경제가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 피력
- 또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이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 오미크론이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특성을 지녔다면, 이에 따른 경기둔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ECB 부총재 및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데 쿼도스 부총재는 최근의 역내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종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
- 이탈리아 중앙은행 비스코 총재는 새로운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로존에 또 다른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오미크론 관련 불확실성은 매우 높다고 발언

■ 중국 국무원, 베이징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검토

-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이번 검토는 암호화폐의 확산을 억제하고,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

■ 중국 10월 공업이익, 전년동월비 24.6% 늘어 2개월 연속 증가세

- 통계국에 따르면, 같은 달 공업이익은 8187억위안. 9월 증가율은 16.3%. 통계국의 주 홍은 당국의 공급차질 해소 노력이 생산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 터키 대통령, 저금리 유지 의사를 거듭 강조

-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국 국민이 고금리에 따른 고통을 겪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 이에 더해 생산, 고용 등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29 현지시각 기준)

- ECB 파네타 이사,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강연, 미국 10월 잠정주택판매
- 미국 10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유로존 11월 소비자신뢰, 독일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기업들, 오미크론 사태에 직면하여 즉각적인 경영 변화는 보류 - WSJ

(Companies See Omicron Variant as Latest Unknown in a Pandemic Full of Shocks)

- 초기 코로나 19 대유행과 올해 여름 델타변이 확산 과정에서 기업들은 빠른 프로세스 전환 방법을 습득. 이에 경영진들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백신에 내성이 있는지 등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진단
- HubSpot의 Katie Burke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지만, 즉각적 대응이나 공황상태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많은 기업들은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안전조치 복원 및 빠른 태세 전환 준비를 대비

■ OPEC+의 원유 감산 완화 계획, 오미크론 출현으로 불확실성 증가 - 블룸버그

(New Covid Variant Puts Pressure on OPEC Oil Producers)

- OPEC+는 원유공급이 2022년 1/4분기에 수요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측. 이러한 가운데 일부 국가의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에 이어 오미크론 출현에 따른 봉쇄조치 재개 예상 등으로 증산 보류가 당연한 상황. 그러나 실제 이행이 쉽지는 않을 가능성
- 이는 10월 브렌트유 가격은 1월 대비 66% 상승하고 지난 금요일 급락에도 여전히 40% 높은 상황에서 OPEC+의 증산포기 결정은 자칫 원유시장의 안정을 악화시키며 전략비축유 방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조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

■ 오미크론 사태,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부각 - Financial Times

(Worrying new strain shows the virus is not beaten)

■ 유럽의 에너지 위기, 기온 하락 등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 - 블룸버그

(Europe's Energy Crisis Is About to Get Worse as Winter Arrives)

■ 터키의 통화위기, 에르도안 대통령의 의사결정 오류가 주요 원인 - Financial Times

(Turkey's currency crisis is of Erdogan's makin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